

플라스틱 · 제약 공장 화재 · 폭발

B에너지,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 연기 제약공장도 폭발사고

1월12일 오후 10시54분경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농공단지에 위치한 B에너지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공장 안에서 이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월12일 오후 9시25분경에는 충남 연기군 서면 부동리의 모 제약 공장에서 의약품 원료의 혼합기가 폭발했다.

공장 6개동 가운데 1개동의 지붕과 외벽 일부(약 100m²)가 무너져 62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13>